

지역 소식통

김제시의회, 방역활동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돼 지역사회 감염에 총력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10일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자율방역을 실시했다.

김제시의회 운주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소독을 진행하고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시설 내 위생수칙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방역을 진행한 해당 시설들은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51명, 경기도 분당제생병원에서 13명의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에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 타 시설에 비해 크게 요구되는 곳이다.

김제시의회 운주현 의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요양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안전하고 안심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일용직 근로자 코로나19 예방 홍보 활동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일용 근로자들의 취업 알선 환경 개선을 위해 직업소개소 일제 출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9일부터 직업소개소 일제 출장을 벌이고, 홍보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3일까지 추진되는 직업소개사업 일제 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협조를 위한 홍보전단지, 손소독제(1개 소당 2개) 배부와 함께 외국인 구직현황 조사를 벌인다.

또한, 완주군의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유·무료 직업소개소 2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직업소개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용근로자의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방안 등 직업소개사업의 직무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추경예산안 편성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본 예산보다 5% 증가 정부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맞춰 진행 · 이달 24일 확정

김제시는 지난 9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8,754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 8,322억원보다 4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12억원(5.38%)이 증가한 8,076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3.08%)이 증가한 678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맞춰 추진하는 것

로 특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역물품과 마스크, 선별진료소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 7억 6천만원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김제사랑 상품권 특별할인 등으로 5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46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지형선박공제 다목적

육관 건립사업(50억) ▲가족센터 건립사업(10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설 설치사업(10억 9천만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7억4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김제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오는 3월 24일에 최종 확정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김제시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원봉사단체들이 면마스크 제작 재능기부를 통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았다.

면 마스크 제작 · 나눔 봉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70여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추세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원봉사단체들이 면마스크 제작 재능기부를 통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았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면마스크 제작 나눔 봉사활동은 재능을 재능기부자 15명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총 7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3일까지 5일간 총 2,500장을 제작하여 관내 운전기사, 외국인근로자, 전통시장상인 및 취약계층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면마스크 나눔 시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여 개인위생관리에 힘써줄 것을 홍보했다.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감염의

위험이 높지 않은 일반가정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김제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지자체의 대응만으로는 확산을 완벽하게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 주민의 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타작물 재배 농가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벼 대신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예정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신청 · 내년 2월 지급

완주군이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지원한다.

완주군은 2018년부터 벼 대신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에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의 올해 지원규모는 108ha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ha당 조사료작물은 430만원,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하반기 이행점검 이후 2월에 지급한다.

신청자격 요건은 2018~2019년 논 타작물 지원을 받은 농지이거나 2017~2019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농업경영체 등록면적 1,000㎡ 이상면적)로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두류, 일반, 휴경농지 중 공익직불금이 지급된 농지는 ha당 70만원을 감액 지급하고, 제외품목이 무, 배추, 고추, 대파 4품목에서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4품목이 추가돼 신청단계에서 지원 제외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2018, 2019년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한 농가가 올해 재신청한다면 허용된다.

이규진 기술보급과과장은 "논 타작물 사업은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청년 창업형 후계농, 대구에 물품 지원

김제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 및 봉사자들에게 전해달라며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굶배이 환, 녹각영, 지버섯환, 생강환 등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받았는데 고생하고 있는 대구지역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탁하게 되었다.

청년 창업형 후계농은 2018년 32명, 2019년 35명으로 모두 67명이 영농정착금을 지원받아 수도작, 원예, 축산, 화훼, 특용작물 사업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김제의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기탁식에서 청년 창업형 후계농을 대표해 김기현은 대구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싶은 의지를 많은 분이 밝혔으나 신선식품 등은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면역력 위주의 가공식품 중심으로 준비했다며 사랑과 온정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식품기업 지원 공모사업 6건 선정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미란)는 관내 농식품기업에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6건이 선정되어 관내 농가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2월부터 3월까지

걸쳐 서류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3억 3,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은 진봉면에서 생산하는 보리·밀로 엮기류, 맥이생산지배구축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내년까지 2년간 투자하게 되고, 누무지를 이용한 반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1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한 관내 생산 콩 소비가 기대되는 두부 생산업체에 HACCP시설과 포장재 지원을 위해 35백만원, 관내 쌀소비를 늘릴 수 있는 떡 가공업체에 2억원을 투자해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장 위기 극복에 총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심미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2월부터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딸기, 포도, 사과, 꾸지뽕, 양봉, 밀, 쌀, 버섯, 다육이, 말, 곤충을 이용해 24개의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 농장들은 학교교육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 하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발생한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중순부터는 방문객이 예약된 체험을 모두 취소했으며 체험장 운영자 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체험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체험 소득이 전혀 없으며 농산물 판매

역시 기존 거래처들의 연이은 납품 취소로 대부분 농장들이 도매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5% 이상의 가격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수입으로 농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체험농장의 농업소득 정상화를 위하여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의 온라인 판매 확대 추진과 함께 코로나 19 감염증 피해 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에 다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비자 관심의 집중함을 필려했 계획이며 더 나아가 관심을 너넨한 장바구니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응원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